護國성지 표충사, 산문 세워 위상 높이다

8월 17일 산문 준공식 및 현판 제막식 봉행

신라 무열왕 때 원효대사 세워
창건 역사상 최초로 산문 준공
종정 진제 스님 친필 휘호 현판
"새 시대 호국정신 이어갈 것"



표충사는 8월 17일 산문 준공식 및 현판 제막식을 열었다. 사진은 내빈들의 테이프 컷팅 모습.

원효대사와 사명대사의 호국 숨결이 살아있는 재약산 표충사의 산문이 열렸다. 표충사 산문은 창건 이래 처음 준공됐다.

밀양 표충사는 8월 17일 산문 준공식 및 현판 제막식을 열고 국운융창 기원함으로써 호국성지로 위상을 세웠다는 평을 받았다. 이날 자리에는 조계종 종정 진제 스님과 前 통도사 방장 원명 스님 및 통도사 주지 영배 스님, 前 통도사 주지 원산 스님, 법산 스님, 주지 법기 스님, 밀양불교연합회 회장 태우 스님이 참석했다. 아울러 박영근 문화재청장, 박일호 밀양시장, 황인구 밀양시의회 의장 등 사부대중 1000여명이 찾아 축하했다.

표충사는 신라 무열왕(654년) 때 원효대사가 삼국통일을 발원하며 창건한 사찰로, 이후 임진왜란 당시에는 사명대사가 호국 불교를 드높인 곳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이번 산문 준공은 창건 후 처음으로, 호국불교 본산의 역할을 담당하며 문화유산을 간직한 가람으로서 위상을 드높일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산문 준공식은 기도축원으로 시작해 사물놀이, 선비춤, 명상품, 법고 타고식으로 진행됐다. 현판 제막천은 붉은색, 노란색, 초록색, 파랑색, 흰색으로 덮였다. 붉은색은 용기와 정열을 뜻하며 밀양 시민들의 호국정신을 표현했다. 노란색은 영광과 부귀를 담아 국운융창을 기원했다. 또한 초록색은 신행과 불멸을 상징하며 파랑색은 차분함으로 참석한 모든 이의 건강을 발원하는 의미다. 마지막 흰색은 평화와 행복 그리고 광명을 뜻하며 호국영령과 유주무주 영가의 평안을 기원하는 색이다.

제막천이 걷어지자 조계종 종정 진제 스님이 직접 쓴 호국성지 표충사(護國聖地 表忠寺)와 뒷면에는 재약산문(載嶽山門) 휘호가 모습을 드러냈다. 이어 테이프 커팅, 주지 법기 스님의 인사말씀 및 진제 스님의 법문, 통도사 주지 영배 스님의 격려사와 내빈들의 축사가 진행됐다. 종정 진제 스님은 "표충사는 임진왜란 당시 왜군의 침략을 막기 위해 대중이 함께 힘을 모은 역사적인 곳"이라며 "일본 적진에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평화조약을 이룬 사명대사의 호국 법력을 이어받고 산문을 드나드는 모든 이들이 그 정신을 마음 깊이 기리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통도사 주지 영배 스님은 "표충사는 원효대사가 삼국 통일을 발원하며 대통합을 기원했고 이후 임진왜란 당시에는 나라를 지킨 사명대사가 호국 불교를 드높인 곳"이라며 "이제 새 시대에 맞는 또 다른 호국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고 믿는다"고 축하했다.

주지 법기 스님은 "사명대사의 호국정신을 잇고 국가와 민족을 위해 활동하는 표충사로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표충사는 이날 산문 준공에 힘써준 공로를 인정해 박일호 밀양시장, 이병희 경상남도 도의원, 최병기 부북면사무소 면장, 이근용 화성문화재 대표에게 감사패를 수여했다.

표충사 산문은 2015년 문화재청의 허가를 받아 추진되기 시작했다. 이후 대형버스 교행을 위한 산문 건립을 재추진해 지난 5월 31일 상량식을 봉행했다. 표충사는 향후 산문 단청 불사 도 계획 중이다.

하성미 기자

김해 길상사, 孝心으로 부처님 사랑 전해

8월 10일 지역 경로당 16곳 방문해 건강 발원


김해 길상사는 8월 10일 김해에 위치한 지역 경로당 16곳을 방문했다.

김해 길상사가 지역 경로당을 방문해 무더운 여름 어르신들의 건강을 기원했다. 길상사(주지 혜수)는 8월 10일 김해에 위치한 지역 경로당 16곳을 방문했다. 경로당 방문 봉사에는 길상사 봉사단체 성현덕회 회원 및 신도 50여명이 참여했다.

경로당 방문 봉사는 지역 어르신에게 간식 후원 및 의료 봉사를 행함으로써 건강을 기원하고 따뜻한 지역 만들기를 위한 사업이다. 길상사 주지 혜수 스님은 베풂과 나눔으로 보시 바라밀을 몸으로 익히고 배우게 한다는 목표로 외국인 김장 나누기, 요양원 방문, 쌀 나눔 등 다채로운 봉사를 진행 중이다.

혜수 스님은 "요즘은 경로사상을 잊어버리고 찾아보기 힘들다"며 "잊어버린 효심을 실천을 통해 찾고 우리 스스로를 되돌아보기 위해 시작했다. 주는 것으로 참된 행복을 알고 체험하길 바란다"고 봉사자들을 격려했다.

박예순(55) 성현덕회장은 "우리 어머니 아버지라 생각하고 방문하고 있다. 한해는 방문이 늦은 적이 있었는데 어르신들이 기다리고 계신 것을 보고 마음이 불편했다"며 "어르신들이 외로움을 많이 느낀다. 저희들의 방문이 작게나마 도움이 된다면 그것으로 행복하다"고 말했다.

이도경 부산지사장

백련사, 해수관음보살 조성 점안 법회

시민과 불자 위한 쉼터 발원


백련사는 8월 17일 경내 앞마당에서 '해수관음보살 조성 점안식'을 봉행했다.

부산 광안리 바다가 보이는 백련사에 해수관음보살이 자리 잡았다.

부산 용호동 백련사(주지 대방)는 8월 17일 경내 앞마당에서 '해수관음보살 조성 점안식'을 봉행했다. 백련사 해수관음보살은 5년 전부터 기도를 위해 찾는 신도들의 염원이 모여 조성됐다.

백련사는 해수관음보살과 함께 약사여래보살도 함께 경내에 이운하고 이를 축하하는 작은 음악회도 열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주지 대방 스님과 신도 100여명은 점안을 축하하며 기도 도량으로 정진할 것을 다짐했다.

대방 스님은 "백련사 신도들의 발원으로 모신 해수관음보살님으로 더욱 환희심이 난다"며 "백련사는 앞에 부산 바다가 보이는 명소에 자리를 잡고 있다. 공원 부지로 개발이 그동안 어려웠는데 2020년이 되면 도량을 정비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 그 때를 기다리며 시민들과 불자들이 쉼을 얻을 수 있는 터전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도경 부산지사장

세계평화 기원하는 생명 존중 대법회

쌍계사, 9월 7일 제27회 자비방생 대법회


쌍계총림 쌍계사가 세계평화와 남북통일, 민족화합을 기원하는 '제27회 자비방생 대법회'를 9월 7일 오전 9시 30분 고성 당항포 공룡 엑스포 행사장에서 개최한다. 사진은 지난 해 방생 자료사진

세계 평화 · 남북통일 · 민족화합을 기원하는 자비방생 대법회가 열린다.

쌍계총림 쌍계사(주지 원정)가 세계평화 · 남북통일 · 민족화합을 기원하는 '제27회 자비방생 대법회'를 9월 7일 오전 9시 30분 고성 당항포 공룡 엑스포 행사장에서 개최한다.

쌍계사가 주최하며 제13교구 본말사 암연합회가 주관하는 이번 법회에는 쌍계사 방장 고산 대종사를 비롯해 주지 원정 스님과 제13교구 본말사암 소속 54개 사찰 및 신도 25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행사는 법요식 개식 선언에 이어 헌화, 대회사, 고산 대종사의 법어, 격려사, 축사 순으로 진행된다.

법회 후 방장 고산 스님을 비롯해 사부대중은 방생 의식에 참여하고 생명존중의 참된 뜻을 되새기고 평화를 기원한다.

쌍계사는 "진정한 방생이란 죽음에 직면한 물고기를 살려줄 뿐 아니라 주위의 어려운 이웃과 고통을 함께 나누는 것"이라며 "자신의 것을 나누어 모두의 행복을 발원하는 방생 대법회에 동참해 기쁨을 누리길 바란다"고 독려했다.

한편, 쌍계사는 1992년부터 매년 하안거 해제 직후 자비방생 대법회를 봉행한다.

방생법회는 쌍계사 방장 고산 스님이 중생교화를 위해 자비심을 강조하고 실천하는 장을 마련하기 위해 시작됐다. 평화와 민족 화합은 자비심서 비롯된다는 가르침을 전해 정토를 구현하고, 대중에게 생명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것이 취지다. 매년 2000명이 넘는 불자들이 참석해 경남을 대표하는 방생법회로 자리 잡았다. 특히 방생법회가 열리는 고성 당항포는 임진왜란 당시 격전지로 전쟁의 아픔을 간직한 곳이라 의미가 깊다.

쌍계사는 "과거 총칼을 겨누었던 전쟁의 상흔을 치유하고, 평화와 화합을 기원하는 법석을 마련하기 위함"이라며 "법회를 준비해주신 분들과 참석한 대중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이 가득하길 바란다"고 발원했다.

하성미 기자

생명나눔, 함께 걸으며 생명희망 심어요!

부산생명나눔, 9월 9일 걷기대회 개최

장기기증 및 생명가치의 소중함을 알리기 위한 걷기 대회가 열린다.

(사)생명나눔실천 부산지역본부(본부장 원범, 이하 부산생명나눔)는 9월 9일 오후 2시 부산 시민공원(다솜관)에서 '제9회 희망세상 만들기 생명나눔걷기 대회'를 개최한다.

생명나눔걷기 대회 참가자들은 3㎞를 환우들과 함께 걸으며 생명의 소중함과 생명 나눔의 의미를 되새기고 장기 및 조혈모 세포 기부 홍보 활동을 펼친다. 부산 생명나눔은 걷기코스를 3군데로 나누고 퀴즈 문제를 제시하는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마련한다.

이번 행사에는 환우 및 생명나눔실천이사 스님 및 일반 시민 등 1000여 명이 참석한다. 부산생명나눔은 매년 환우에게 휠체어를 전달하고 있다. 걷기대회와 아울러 풍선 아트, 무료차 시음 등 다양한 체험 부스를 설치한다. 걷기대회 후에는 축하 공연이 이어지며 추첨을 통해 사은품도 전달한다.

하성미 기자



